

왜 저는 설교에 대해 강의하고자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는 제 평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사역의 주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물론 설교만 한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게다가 설교는 제가 계속해서 연구해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설교해 오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바로 그 부족함과 실패 때문에 설교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기꺼이 이 강의를 수락한 이유는,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설교야말로 사람의 소명 중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밝히려면, 참된 설교야말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크고 긴급한 필요일 뿐 아니라 세상의 가장 큰 필요임이 분명합니다.

설교야말로 가장 긴급한 필요라는 이 진술은 우리가 함께 논할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설교는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현대 교회와 현대 사회에 설교가 설 자리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설교는 시대에 뒤쳐진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의 현 상태를 가장 잘 밝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야말로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다소 위태로운 처지로 전락해

버린 주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교의 필요성과 교회 사역에서 차지하는 위치 전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문제부터 다루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에 관해 강의하거나 강연할 때 설교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수단 및 방식, 기교부터 다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몹시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은 전제와 배경과 원리입니다. 제가 크게 오해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주로 설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현대 세계에 설교가 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좀더 큰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지 설교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의문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말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고수하는 많은 이들은 교회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교회부터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아주 많은데도—전통주의와 형식주의, 생명력 상실 등—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안이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쉽

게 하나의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교 모임이나 그 비슷한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총체적인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강의의 목적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이 일반적인 태도의 일환으로 설교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설교에 반발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한때 교회의 삶에서 차지했던 위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위치에서 추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건성으로라도 교회사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교가 교회의 삶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지위와 능력이 이처럼 쇠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으로 교회 내부의 특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흔히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상황을 두고 말할 때, 저는 보통 볼드윈주의 Baldwinism를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영국에 스탠리 볼드윈 Stanley Baldwin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름에서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 중요한

인물이 못되었던 이 사람은 연설과 웅변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가치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로이드 조지 David Lloyd George,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 버컨헤드 경 Lord Birkenhead 같은 인물들이 이끌었던 연립내각 시대 이후에 권력을 잡아 수상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선임자들은 위대한 연설가요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이 없었던 스탠리 볼드윈은 자신이 그 뒤를 이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연설과 웅변의 가치를 깎아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위대한 웅변가였던 이 탁월한 인물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신이 소박하고 정직하며 평범한 영국인임을 내세웠습니다. 스스로 위대한 웅변가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으며 별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암시를 준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자신을 대조함으로써 이러한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웅변술과 상상력을 대단하게 발휘할 수는 없지만, 소박하고 분명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솔직한 인물로 다가서겠다는 것이 그가 채택한 노선이었습니다.

웅변과 연설의 힘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영국에서,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 또한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웅변이나 수사 修辭나 그에 준하는 연설을 새로운 태도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웅변가에 대한 불신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읽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스스로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위대한 연설가나 웅변가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교양인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책을 읽거나 도서관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있어서 진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집에서 직접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이 교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설교처럼 입으로 전달되는 말에 대한 교인들과 교회의 관점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설교에 반하는 일반적인 분위기를 반박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일부 위대한 활동가들이 위대한 연설가이자 웅변가였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컨대 20세기에 일어난 양차대전 기간에 영국에 등장했던 위대한 두 지도자가 모두 위대한 웅변가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실속 없는 말쟁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 주려 했던 자들도 역사의 분명한 사실 앞에서는 입을 다물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활동가들은 위대한 연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각성시켜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지도자의 필수요건이자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의 일부입니다. 페리클레스Pericles나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세계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입증해주는 사실은, 말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알았던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행동하게 할 줄 알았던 사

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일반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 자체가 보여 주는 특정한 태도, 즉 설교의 지위를 쇠퇴시킨 교회 내부적인 이유들입니다. 저는 이 큰 항목 아래 몇 가지 중요하고 주된 요인들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제가 서슴없이 첫 번째로 꼽는 요인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이 점이야말로 주된 요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면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의 위대함은 항상 주제의 위대함에 좌우됩니다. 어느 영역이든 주제가 위대하면 연설도 위대하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시대에는 그 권위에 근거해서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추측하고 이론화하며 가정하기 시작했고, 말로 전하는 위대하고 웅변적인 설교는 필연적으로 퇴조하고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측과 짐작에 불과한 내용을 전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을 다루었던 과거의 설교자들처럼 설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교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설교는 윤리적인 담화나 도덕적 훈계, 사회 정치적 담론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설교가 쇠퇴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권위의 상실이야말로 설교가 쇠퇴한 첫 번째 원인이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공정한 태도로

더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위대한 강단꾼들 the great pulpiteers', 특히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물들이 반발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물들은 영국에도 많았고 미국에도 많았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바지만, 이 영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미국인은 헨리 워드 비처 Henry Ward Beecher입니다. 그는 강단꾼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완벽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용어이며, 제 생각에는 아주 정확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설교자라기보다는 강단꾼들이었습니다. 즉, 강단을 점령하고 지배하며 청중을 지배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 직업인들이었습니다. 쇼맨십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회중을 다루며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청중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반응입니다. 제가 보기에—그리고 제 설교관에 의거할 때도—이러한 강단꾼들은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현재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반발감에 여러 모로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설교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에드윈 해치 Edwin Hatch가 교회에 미친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다룬 책에 나오는 흥미로운 진술이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학 때문에, 그리고 수사학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한 결과,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철학이 명성을 잃고 쇠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해치의 말을 인용해 보

졌습니다.

역사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수사학이 철학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철학이 그 현실성을 잃고 사고와 행동의 영역에서 떠나 주해와 문학의 영역으로 옮겨 가 버린 탓에,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철학은 죽은 학문이 되어 버렸다. 그 전파자들은 표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진리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련된 문장에 능숙한 전문가들이며 그 시대 자체가 세련된 문장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했다. 요컨대 철학은 궤변이 되면서 죽어 버린 것이다. 궤변은 특정 나라나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성장하는 모든 토양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위대한 천재 작가가 특별한 형태의 문학을 창출해 내면, 곧이어 문체 그 자체를 위해 문체를 연마하는 일군의 무리가 등장한다. 철학이든 종교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내용 없이 형식만 모방하는 일군의 무리가 나타나 과거의 메아리를 현재의 소리처럼 꾸미려 들게 마련이다. 똑같은 일이 기독교에도 일어났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점으로서, 강단꾼들이 참된 설교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바와 아주 실제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해졌고, 웅변과 수사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설교는 결국 오락의 한 형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진리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지나가면서

잠깐 다루는 정도가 고작일 뿐,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상은 20세기 내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세기에는 특히 전도를 목적으로 한 인기 있는 설교 형태가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 그러한 설교는 내용 없이 형식과 연출에 지나친 관심을 쏟음으로써 참된 설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설교는 쇼맨십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제가 이미 말한 바 전문 직업인의 업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설교문 sermon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 따라서 설교 행위 preaching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대해 방금 지적한 내용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껏 제가 언급한 것처럼 노골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설교집의 인쇄와 출판도 설교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1890년대 경의 설교집 출판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코틀랜드 쪽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가장 큰 해를 끼쳤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이 해를 끼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지의 진실성보다 문학적인 표현에 더 큰 강조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인유(引喩)와 인용 등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그들은 설교자라기보다는 수필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수필을 설교집

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설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이 설교문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설교 행위는 진정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 내 다수의 생각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설교가 쇠퇴한 원인의 상당 부분을 설교문과 설교 행위로 통용되었던 문학적 표출에 돌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설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스며들어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현상은 사람들이 설교 대신 '강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미묘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연'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라는 것이며, 심지어 '강의'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책 시리즈를 「조용한 이야기 *Quite Talks*」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출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의 '고함소리'가 아닌 '조용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큰 제목 아래 '기도에 관한 조용한 이야기', '능력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 등이 출판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목 자체가 설교하지 않겠다는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당연히 영성이 결여된 세속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난롯가에 앉아 나누는 담소나 조용한 이야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에 더하여 '예배 의식', 흔히 '예배의 요소'라고 불리는 부분이 새롭게 강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전에 어떤 모임에서 “우리 성공회는 당신네 자유 교회들보다 당연히 예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의 말뜻은 자신들에게는 예전 형식이 있지만 우리에게에는 없다는 것임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 Liturgy을 예배 worship와 똑같이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설교에 대한 혼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입니다. 즉, 설교가 쇠퇴하면서 예배의 형식적인 요소가 강화된 것입니다. 독립교회라고 부르는 비감독교회라고 부르는 간에, 설교가 퇴조하면서 성공회의 예배 형식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빌려 오고 있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회중이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독문’을 도입하고, 음악과 노래와 성가대 찬양의 비중을 늘립니다. 헌금 방식도 정교하게 만들며, 때로는 목회자와 성가대가 행렬을 지어 예배실로 입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설교가 쇠퇴하면서 그 밖의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설교에 대한 반작용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의식과 형식, 예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좀더 고상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쁜 변화는 공예배에 오락적인 요소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도입되었으며, 노래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는 순서와 기도 순서는 심각할 정도로 축소된 반면, 노래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교회의 새로운 직

책으로 등장하여, 찬양 인도뿐 아니라 분위기 조성의 임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바람에, 정작 분위기는 조성되었지만 설교할 시간은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경시하는 전반적인 풍조를 보여 주는 한 가지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간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설교가 쇠퇴하면서 설교자들이 점점 더 간증할 사람들—특히 각 분야의 유명인들—을 많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중이 복음에 좀더 관심을 가지며 귀를 기울일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간증자로 초대되는 사람들 중에는 해군 제독이나 육군 장성처럼 특별한 직함을 가진 이들도 있고, 야구선수나 연극배우, 영화배우, 가수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보다 그런 이들의 간증 듣는 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오락'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눈치 채셨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오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설교에 등을 돌리고 이런 오락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른바 '개인 사역' 내지는 '상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은 똑같은 상관관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즉, 설교가 쇠퇴하면서 개인 상담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20세기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역인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삶에는 새로운 스트레스와 긴장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 사람의 어려움을 파악해야 하며, 그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아야만 자신들에게 필요한 심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문제를 해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능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은 설교가 교회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밀려나고 쇠퇴하게 된 책임이 바로 이런 것들에 있다는 일반적인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교의 쇠퇴를 불러온 요인들의 목록을 완성하려면 녹음 테이프 항목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이 시대에 등장한 독특하고도 특별한 재앙입니다.

또한 교회 자체도 전반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 실제로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의 위상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가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새로 건축되는 대부분의 예배당들에서는 강단이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 채 옆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전에는 강단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강단이 예배실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상응하는 물건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들입니다.

이제까지는 교회의 가치를 여전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회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복음을 전파하려면 교회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전통과 깨끗이 결별해야 한다.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들과 섞여 살면서 삶을 공유해야 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들도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교회 출석인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특히 영국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며, 설교자들이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계속 전하는 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는 정치와 사회 상황, 세계 각 곳에서 자행되는 온갖 불의, 전쟁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그들을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정치 문제를 언급하고 사회 상황을 다루며 거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설교자로 제쳐 놓은 이들과 교회 내부의 유력인사들이 앞장서서 정치나 사회활동이나 박애사업에 참여하기만 해도,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끼치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도 1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설교 훈련을 시켜 북아프

리카—그는 그때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 언급하던 중이었습니다—로 파송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이제는 그런 것을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대신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섞여 살게 하되, 특히 현지의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그런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지금 사람들의 손자 세대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라는 낡은 방법을 버리고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동정을 표명하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한자리에서 같은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을 예배 장소에 데려와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 내지는 복음의 대체물로 이런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훨씬 나은 수단으로 이런 주장을 크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주장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는 요지,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 모든 것이 기껏해야 차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차선책조차 되지 못하며 그 정도의 가치조차 찾을 수 없을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주된 임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구약 선지서에서도 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일단 신약 성경에 한정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의 사역이 두 측면 내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것은 주된 사역이 아니라 부차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은 그런 기적들을 항상 “표적”이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에도 기적은 표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병자와 앓은뱅이와 눈먼 자를 고치고 폭풍을 잔잔케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고 실제로도 자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부차적인 일이었지, 주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사 용하신 단어 자체가 이 질문에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8:12).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33). 그러한 기적들은 정당한 것이지만 주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며 결과요 열매입니다. 주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신 유명한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여기에 주님의 특별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영역, 즉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이 주제 전반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방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후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요 6:15). 그들은 ‘이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야. 이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바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해. 힘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말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결길로 새게 하는 유혹으로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유혹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이 세상 왕국과 그 밖의 것들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안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은 교회와 목회자의 주된 역할이나 주된 임무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14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파송하시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멈추신 사이, 한 남자가 불쑥 끼어들어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문제 전반을 다루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은 그를 돌아보

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은 아예 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며 올바른 처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요컨대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천국을 떠나 이 땅 위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주된 임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더 큰 일을 기대하며 붙잡으려 했을 때, 일부러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된 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다른 일들은 전부 부차적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 5:14). 저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 보고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볼 때, 설교와 가르침이야말로 주된 임무라는 명백한 증거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활 이후의 사건과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같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택한 자들에게 무엇보다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입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임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즉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풀어서 설교했습니다. 지금 막 발생한 이 현상, 제자들을 이처럼 바꾸어 놓은 현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한 남자를 고친 것을 보고 흥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로 여겨 무슨 큰 혜택을 얻지는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 번 설교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면서, 자신과 요한이 방금 행한 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로 관심의 방향을 즉각 돌려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항상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루는 것은 여기에 교회의 기원과 교회가 처음 한 일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가서 설교하고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더 큰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행 4:20).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했으며,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커다란 부담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종종 생각하는 바, 여러 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진술이 초대 교회에 닥친 큰 위기를 다루는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회의 현 상태와 주된 임무에 대해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첫 두 구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평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것은 확실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진술이며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교회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자, 초대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단지 과부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아주 예민하고 긴급한 사회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렇다면 이 절박한 아우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할 일
 이요 특히 지도자들의 할 일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굶
 고 있고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설교를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출범 즉시 찾아온 중대한 시험이었습
 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주님
 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그 위험성을 간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궤
 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즉, ‘이것은 잘못이다. 만약 우
 리가 이 일을 맡게 된다면 원래의 사명은 놓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우선이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
 리라.”

이로써 교회의 영원한 우선순위가 정립되었습니다. 교회의 주
 된 임무이자 교회 지도자들의 주된 임무, 권위를 가진 자들의 주된
 임무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명분 있는
 일이고 긴급한 일이라도 그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야말로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상당수의 잘못된 사고와 논법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죽 읽어 나가다 보면 도처에서 같은 내용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 장에서 그것을 찾아 보여 드릴 수 있습니
 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절

과 5절을 보십시오.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preaching.” 여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전할새”를 ‘소문낼새 gossiping’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흠어진 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에서는 “전파하니”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고한다는 의미로서, 강단이나 그 밖의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하는 설교자의 모습에 좀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딤후 3:15). 교회는 사회 조직이나 기관, 정치 단체, 문화 단체가 아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2에서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그의 권면은 확실하고도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신약 성경의 주장과 진술을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를 조감해 볼 때, 교회 역사상 위축된 시기는 항상 설교가 쇠퇴했던 때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매번 종교개혁과 부흥의 새벽을 알렸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설교에 새로운 관심이 생긴 것이며, 새로운 종류의 설교가 등장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렸던 전조 현상은 언제나 참된 설교가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중대한 설교의 시기가 도래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초기에도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루터 Martin Luther, 칼뱅 Jean Calvin, 낱스 John Knox, 래티머 Hugh Latimer, 리들리 Nicholas Ridley 같은 인물들은 모두 위대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17세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들과 다른 설교자들도 떠올려 보십시오. 18세기의 조너선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와 윗필드 George Whitefield, 웨슬리 형제 John & Charles Wesley, 롤런즈 Daniel Rowlands, 해리스 Howell Harris도 모두 위대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18세기는 위대한 설교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과 부흥을 접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답변, 즉 설교야말로 교회의 주된 임무라는 진술은 성경의 증거와 교회가 지지하고 확인해 주는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히 논의하고 증명해 보겠습니다.